



겨울의 눈빛
박승외 외 지음

문지문학상 수상 작품집

문학 제도가 기성의 '문학적인 것'을 보존하려는 장치가 '문학상'이라면, '문지문학상'은 그것에 충격을 가하려는 기이한 문학상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문지문학상 수상작과 후보작 등 11편의 중·단편이 실린 제4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 '겨울의 눈빛'이 출간됐다. 수상작 박승외 '겨울의 눈빛'을 비롯 윤이형 '굿바이', 구병모 '이창', 김성중 '쿠문', 김미월 '어느 날 문득', 윤해서 '홀', 김술 '암스테르담 거리지 세일 두 번째', 조해진 '빛의 호위', 황정은 '상류엔 맹금류', 김엄지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 기준영 '이상한 정열'은 신예들이다.

수상작인 단편 '겨울의 눈빛'은 고리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황폐화된 부산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승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요즘, 소설은 묵시록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숙절없는 운명에 대한 담론은 이 소설을 단순히 환경 재난 소설로만 볼 수 없게 한다.

심사위원들은 "짧은 작가들의 자의식 가득한 작품들이야말로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자 자부심의 근원"이라고 심사 경위를 밝힌다.

〈문학과학지성사·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를 발각 뒤집은 판결 31

L. 레너드 케스터
사이먼 정 지음

세기의 재판에 숨겨진 진실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들의 종착지는 재판이다. 세익스피어는 "세계는 하나의 무대요, 모든 남녀는 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정 무대에 오르는 인물들로부터 생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공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와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L. 레너드 케스터·사이먼 정이 펴낸 '세계를 발각 뒤집은 판결 31'은 재판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다룬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에서 열린 소크라테스 재판에서부터 2011년 일본 뱀처 기업인 호리미 다카후미에 대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파헤친다.

영국의 메리 스튜어트와 찰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6세 등 왕들을 처단한 재판을 비롯, 중국의 4인방 재판, O.J. 심슨 사건 등이 법정 판결로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이를 통해 국왕, 정치가, 법률가, 기업인, 대중 스타 등 다양한 인간군상이 법정이란 무대 위에서 피고, 변호인, 고발자의 역할을 맡아 논쟁하고, 침묵하면서 재판의 판결을 위해 영향을 미쳤던 순간이 날 날이 드러난다.

〈현암사·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탐욕은 어떻게 문명과 생명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나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
스테파노 자마니 지음

"아무 대가 없이 준다든가, 그것은 무엇을 주느냐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기부는 적선 행위에 속한다. 반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만남과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다... 본질적으로 대가 없는 선물은 상호 교류를 고도로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상호성을 지닌다. 상호성이 있어야만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고, 상호 인정이야말로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원동력이다." 〈본문 중에서〉

세월호 사고는 '탐욕'이 빛을 잠사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재난이 없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사고는 명백히 탐욕이 만든 '대사건'이었다.

참사를 부른 원인도 과정,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또 어떤가. 참사도 참사지만 이를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보였던 비인간적이며 비도덕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탐욕에 찌들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람에 눈 멀면 부모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부모의 조언이나 만류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떨까.

그에 대한 답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 아니 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이를 전에 끝난 지방선거는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탐욕이라는 괴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괴물은 시대마다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지배했을까.

협동조합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스테파노 자마니

때론 악덕으로 때론 미덕으로

2천년 탐욕의 경제사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해법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인 탐욕을 분석한다. 그가 쓴 '인류 최악의 미덕, 탐욕'은 고대 로마부터 포스트모던 사회까지 탐욕의 경제사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탐욕의 본성에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1세기 로마가톨릭이었다. 이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신학자들은 중심으로 탐욕을 모든 악의 뿌리로 규정했다.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서는 지위를 탐하는 것도 탐욕이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분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수도(修道)문화 붐이 일었던 11세기는 가난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당연히 탐욕이 가장 악한 덕으로 치부되었다. 12세기 상업경제의 발달은 신용대업을 번성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탐욕은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존의 탐욕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 탐욕은 본성을 거스르는 게 아니며, 마찬가지로 탐욕가는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

이 같은 관점은 벤담의 공리주의가 확산되던 18



피터 반 데르 헤이덴 작 '탐욕' (1558년). 피터르 브뤼헬의 데생으로 찍은 판화.

세기까지 이어진다. 철저한 결과주의에 입각한 경제 논리는 효용이 최고의 덕으로 여겨졌다.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한 20세기 이후에는 탐욕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물론 여기에서는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이유였다.

이처럼 탐욕의 역사는 그리 간단치 않다. 악의 뿌리에서 자본주의 동력으로, 다시 자본주의 위기의 주범으로 인식이 바뀌어왔다.

저자는 작금의 금융업 같은 투기 거품은 '정신적 거품'에서 연유한다고 진단한다.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 자본에 휘둘리는 사람들, 규제 장치를 장악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환상 등이 투기 거품과

맞물려 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관 같은 기업과 자원봉사자가 시장을 혁신하는데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풍족한 사회라 할지라도 부를 나누지 않으면 불행으로 이어진다. 탐욕가의 치명적인 죄는 진정성과 무상성을 실천하지 않아 문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있다. 진정한 '나눔'이 필요한 이유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즉 사망을 낳는다."

〈복음음·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상을 바꾼 작은 우연들
마리 노엘 샤를 지음

우연이 필연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아수 사소한 계기가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다.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에는 순간의 '우연'이 기폭제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우연은 뜻밖의 사실을 알

다이나마이트·페니실린... 우연히 탄생한 위대한 발명품들

려주고, 행운을 부르기도 하며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프랑스 포도주 양조 분야 전문가 마리 노엘 샤를이 펴낸 '세상을 바꾼 작은 우연들'은 우연히 탄생한 세기의 발명품 50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폭약시장 시대를 연 다이나마이트, 세균으로부터 생명을 구한 항생제 페니실린, 병원균 면역을 만드는 백신, 당뇨병 환자들의 희망 인슐린, 축

육기 등은 그 같은 산물이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노벨이 나이트 로글리세린이 든 플라스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놀랍게도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바닥에 깔려 있던 톱밥에 스며드는 게 아닌가. 노벨은 그 순간 나이트로글리세린 안정화방법을 착안하게 되고 이는 후일 다이나마이트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책은 우연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발명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독서의 즐거움뿐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시사점은 따로 있다.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고 했던 루이 파스퇴르의 말이 그리 간단치 않게 들려온다는 것이다.

〈윌컴퍼니·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의학용어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탄생했다고



신화 속 의학 이야기
박지욱 지음

의사를 상징하는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의 지팡이, 위생을 의미하는 하이젠(hygiene), 모르핀(morphine), 유전자(gene), 거인증(gigantism), 고혈압(hypertension), 기억상실증(amnesia), 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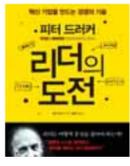
제(emetic), 아틀라스 목뼈(atlas), 일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의학 용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현직 의사인 박지욱이 의학과 신화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 떠나는 '신화 속 의학 이야기'를 펴냈다.

책은 현직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의학 용어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그리스 신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과학 과잉의 의의, 과학적 도그마에 갇혀 있는 의학과 고대의 신화와 인본주의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한울·1만9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기업 현장에서 맞부딪히는 위기와 딜레마



리더의 도전
피터 드러커 지음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세계적인 경영학자이자 경영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사례집 '리더의 도전'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기업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 50가지를 엮은 사례집이다. 드러커는 이 사례들을 통해 경영자

라면 한번쯤 맞부딪히는 전형적인 위기와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제시한다.

가장 큰 특징은 드러커의 경영철학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책을 읽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각 사례들은 하나같이 구체적 상황, 문제,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 및 공적 서비스 조직에서 반복하게 벌어지는 갖가지 전형적인 위기와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친절하게 짚어 주고 있어, 리더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건축모델 팀원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